

LA한국교육원, 전남도교육청과 제3회 '내가 사랑하는 한국문화 발표대회' 개최

- 올해는 한국어 실력에 따라 학생통역사 부문과 홍보대사 부문으로 대회 진행
- 수상자들에게는 한국대학 유학 시 장학금 우선 지원 혜택 제공
- 경기민요, 설날, 부채춤 등 한국문화를 미국 학생의 시각에서 감동적으로 소개

□ LA한국교육원(원장 이병승)과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4월 17일(금), 로스앤젤레스(이하 LA)한국교육원에서 제3회 '내가 사랑하는 한국문화 발표대회' 를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대회는 2024년과 2025년 이어 양 기관이 공동 주최하는 세 번째 행사로 한국어 학습 수준에 따라 학생 통역사 부문(한국어 60% 이상 사용)과 학생 홍보대사(한국어 20% 이상 사용) 부문으로 나누어 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 남가주, 네바다, 애리조나주 중·고교 한국어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총 50명의 학생이 참가 하였으며, 예선 영상 발표 대회를 거쳐 선발된 13명의 학생들이 본선 무대에 올라 자신만의 관점으로 한국문화를 발표하였습니다.

○ 발표 주제는 한글, 정, 경기민요, 설날, 부채춤, 한복, 존댓말 등으로 다양했으며, 학생들은 자신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발표를 진행해 청중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끌어냈습니다.

○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2025년 수상자인 Sarah Yoon 학생과 David Hirota 학생이 사회를 맡았으며 2026년 수상자들에게 어사화를 물려주며 한국문화를 향한 애정을 후배들에게 전했습니다.

※ 어사화: 조선시대 임금의 장원급제자를 충성을 칭찬하며 하사하는 꽃.

- 대회 결과, 1등상에 해당하는 한글대상 학생 통역사 부문에서 West High School의 Chloe Kim (9학년) 학생이, 학생 홍보대사 부문에서는 Palos Verdes Peninsula High School의 Sakura Saito (12학년) 학생이 수상하는 등 총 13명의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 수상 학생들은 LA한국교육원 학생 통역사 및 한국문화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LA 지역에서 열리는 한국 관련 행사에서 통역 및 문화 홍보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 아울러 수상 학생들이 한국 대학으로 장·단기 유학을 할 경우 LA한국교육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 대학 학비 감면·면제 등 장학 지원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 한글의 깊이를 통해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소개하며 학생 통역사 부문 한글대상을 수상한 Chloe Kim(West High School, 9th) 학생은 “이번 발표대회 준비를 위해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연습하면서 한국어 실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며, “외교관이 되는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 대학으로 유학을 가서 양국의 문화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다” 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 한복에 대한 애정을 담은 발표로 학생 홍보대사 부문 한글대상을 수상한 Sakura Saito 학생(Palos Verdes Peninsula High School, 12th)은 “한복 한 벌에도 배려와 존중이 깃들여 있는 한국 문화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나 자신을 표현해 볼 용기를 갖게 되었고, 기대하지 못했던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 고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Steam Academy at Burke 소속 Nancy Kim 교사는 “LA한국교육원과 전라남도교육청이 학생들이 한국문화에 대해 좋아하는 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점이 매우 뜻깊다” 고 전했습니다.
- 공동주최기관인 전라남도교육청을 대표해 대회를 참석한 김미정 장학관은 “학생들이 한국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한층 더 다양해지고, 발표 내용

또한 깊이와 완성도를 갖추고 있어 매우 인상적이었다” 며, “이번 대회를 통해 미국의 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배움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 LA한국교육원 이병승 원장은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가치를 나누는 모습에서 교육적 의미와 가능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고 말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진 학생들이 더 다양한 한국어 교육 기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 고 덧붙였습니다.

붙임 : 2026년 내가 사랑하는 한국문화 발표대회 사진 11장 끝.

※ 관련문의 : LA한국교육원 (680 Wilshire Place #200, LA, CA 90005)
(213-386-3112) Homepage: www.kecla.org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담당자	이상범 부원장 (213-386-3112)
	담당자	

사진 1 : 2026년 “내가 사랑하는 한국문화 발표대회” 에 참석한 학생과 교육자들



사진 2 : 2026년 “내가 사랑하는 한국문화 발표대회” 에 참석한 학생, 학부모, 교육자들



사진 3 현지 행사에 참석한 전라남도교육청 김미정 장학관이 학생 발표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 4: Sakura Saito 학생(Palos Verdes Peninsula High School, 12th)에게 학생홍보대사 임명장과 한글대상을 수여하고 있는 전라남도교육청 김미정 장학관



사진 5: Chloe Kim (West High School, 9th) 학생에게 학생 통역사 임명장과 한글대상을 수여하고 있는 이병승 LA한국교육원장



사진 6. 할머니에게서 배운 경기민요에 대한 애정을 주제로 열정적인 발표를 펼친 최민서 학생 (South High School, 9th)



사진 7: 한국인 어머니와 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는 Lincoln Kopsumbut 학생(Palos Verdes Peninsula High School, 11th)과 가족들.



사진 8. 부채춤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한 경험을 나누는 Irene An 학생 (Oxford Academy, 8th)



사진 9.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은 경험을 나누고 있는 Nili Zack 학생(Fairfax High School, 12th)



사진 10. 발표 내용에 관한 퀴즈를 진행하고 있는 학생 사회자들 (2025년 한글대상 수상자 Sarah Yoon 학생, 2025년 세종대왕상 수상자 David Hirota 학생)



사진 11: 한미 양국의 국가를 연주하고 있는 연주자들



끝.